



# 암석원(Rock Gardens) 식물들



장 형 태

대한민국 종자명장 1호

자연석을 조화있게 배치하고 암지(岩地)에서 잘 자라는 고산식물을 돌 사이에 심어 그 돌의 조형미와 식물을 감상하기 위하여 조성한다.

고산지대에서 잘 자라는 식물은 평지보다 사면(斜面)에서 암석을 끼고 자라는 것이 많으므로, 암석의 선택과 배치가 중요하며, 그 자체가 예술성을 나타내는 주된 요소가 되어야 하며, 식물은 그 예술성을 보조하는 요소가 된다. 양지바르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만드는 것이 좋으며 배수가 나쁜 곳은 도랑을 파서 배수가 잘되게 해야 한다.

암석원(록가든)은 평지에서 산지의 경사면과 계곡을 모방하는 것이므로 인공적으로 계곡을 파서 그 흙을 쌓아 경사면을 만들어야 한다. 바닥이 단단한 진흙이면 모래 섞인 흙을 깔아서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석회질을 좋아하는 식물을 심을 때는 석회석을 깠 돌을 흙에 섞어 주면 식물성장에 더욱 효과가 있다. 사용하기 적당한 암석은 되도록 그 질이 거칠고 수분을 잘 흡수하는 암질의 것이 좋으나, 잡다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암석은 그 모양과 크기가 서로 다른 것으로 하되 윗면이 평평한 것은 디딤용으로 사용하고, 면이 뾰족한 것은 경사면을 만드는 데 사용하면 좋다. 암석 배치법은 일정하지 않으나 서로 조화 있게 간격을 두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물 중에는 비록 암지뿐만 아니라 초지(草地)·습지·사지(砂地)·물가 등에서 잘 자라는 종류가 많으므로 인공적으로 만든 암석정원에 경사면과 수로(水路) 등을 만들고 식물들을 다양하게 심으면 고산식물원(alpine garden)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고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 암석원에 잘 적응하는 식물들

돌 나물		<i>Sedum sarmentosum</i> Bunge	
	초 형	포복형 / 다년초	
	식재적지	광(양지) / 토양(건조지)	
	번 식	분주, 삽목(봄 또는 여름의 생육기에 새싹이나 줄기를 잘라 삽목 하거나 포기나누기를 하면 잘 자람)	
	특징/활용	윤기가 나는 잎과 노란색의 꽃이 아름답다. 토심이 낮아 식물의 생육이 어려운 곳에 식재 가능하다. 내건성이 강하므로 옥상정원이나 정원석 주위에 식재하면 잘 자란다. 마디마디마다 뿌리가 나오므로 지면 피복효과가 빠르며, 포기나누기를 하면 번식력이 왕성하다.	
바위손		<i>Selaginella involvens</i> (Sw.) Spring	
	초 형	반원형 / 상록성	
	식재적지	광(양지, 반음지) / 토양(건조지)	
	번 식	늦가을~이른봄에 맹아가 있는 뿌리줄기를 나누어서 번식	
	특징/활용	많은 수염뿌리가 얽혀 헛줄기를 만든다. 줄기는 한 묶음의 수염 뿌리에서 나오며 방사상으로 퍼진다. 주로, 건조한 바위틈에서 붙어서 자란다. 습기가 충분한 시기에는 잎이 퍼져 있다가 건조해지면 안쪽으로 오므라든다. 암석원이나 정원석의 바위틈에 식재하면 좋다. 분화재배양으로도 좋다. 충분한 습기가 유지되면 잎이 오므라들지 않고 유지되므로 관상효과가 높다.	

▶ 암석원에 잘 적응하는 식물들

둥글레		<i>Polygonatum odoratum</i> (Mill.) Druce var. / <i>pluriflorum</i> (Miq.) Ohwi	
	초형	아치형 / 다년초	
	식재적지	광(양지,반음지) / 토양(적습지)	
	번식	종자 : 9월경 성숙한 종자를 채취한 후 곧바로 파종하거나 이듬해 봄에 파종 분주 : 봄, 가을에 뿌리줄기를 분주 삽목 : 여름에 줄기를 5cm이상 잘라서 삽목	
	특징/활용	산지에서 자라며 줄기는 곧게 자라다가 둥글게 휘어진다. 밝은 녹색의 잎은 관상가치가 있으며, 양지, 반음지 모두 잘 생육한다. 뿌리줄기의 번식이 활발하여 지피식물로서 우수하다. 늦봄에 피는 꽃은 황록색, 종 모양이고 아래쪽을 향한다. 타원형의 잎은 어긋나게 붙으며 한쪽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된다. 열매는 둥글고 검은색으로 익는다.	
백리향		<i>Thymus quinquecostatus</i> Celakovsky	
	초형	포복형 / 낙엽소관목	
	식재적지	광(양지) / 토양(건조지)	
	번식	종자 : 7~8월경 채취한 종자를 이듬해 봄에 파종 분주 : 봄~여름 분주 삽목 : 여름에 속지삽 또는 반속지삽 가능	
	특징/활용	낙엽소관목으로 많은 가지가 갈라져서 지면에 낮게 붙어 자란다. 식물체 전체에서 강한 향기가 나는 토종 허브식물로서 암석원, 허브정원, 공중걸이용(Hanging basket)의 소재로 적합하다.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므로 고온다습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척박지, 절개지, 정원석 주변에 식재시 효과적이다. 포복형의 줄기는 땅에 닿은 부분에서 뿌리가 내리며 지피효과가 뛰어나다. 배수가 잘되는 사질양토 또는 알칼리성 토양에서 잘 자란다.	

▶ 암석원에 잘 적응하는 식물들

땅 채송화		<i>Sedum oryzifolium</i> Makino
	초 형	포복형 / 다년초
	식재적지	광(양지) / 토양(적습지)
	번 식	종자 : 9~10월경 성숙한 종자를 채취하여 이듬해 봄에 파종 분주 : 연중 분주 가능
	특징/활용	초장이 낮고 줄기가 옆으로 뻗어 나가 군락을 이룬다. 노란색의 꽃은 줄기 끝에서 3가지로 갈려져서 피며, 잎은 원주상 타원형이다. 토심이 낮아 식물생육이 어려운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내건성이 강하므로 옥상정원, 암석원에 식재하면 잘 자라며 정원석 주변 또는 분화재배(석부작)용으로 적당하다. 바닷가의 바위틈에서 잘 자라므로 내염성이 강하여 염해지역에 식재가능하다.
층꽃나무		<i>Caryopteris incana</i> (Thunb.) Miquel
	초 형	직립반원형 / 낙엽관목
	식재적지	광(양지) / 토양(건조지)
	번 식	종자 : 11월경 성숙한 종자를 채취한 후 이듬해 봄에 파종
	특징/활용	중부 이남 해안가 산지의 양지바른 곳에서 자란다. 보라색 꽃은 입겨드랑이에서 종종 나게 피어나며, 절화용으로 유망하다. 충분한 햇빛이 드는 약간 건조한 곳에서 잘 자란다. 척박지 또는 절개지면에 식재할 수 있으며 대규모의 개활지에 군식 하면 좋다. 청량한 보라색은 화단의 포인트가 될 수 있으며 구절초, 산국, 미역취 등과 함께 배식하면 잘 어울린다.

땅비싸리 *Indigofera kirilowii* Maximowicz



초형	반원형 / 낙엽관목
----	------------



식재적지	광(양지,반음지) / 토양(건조지)
번식	종자 : 10월경 성숙한 종자를 채취하여 이듬해 봄에 파종, 분주

특징/활용  
 긴 꽃줄기에 붙는 연분홍색의 꽃은 관상가치가 있으며 건조하고 척박한 곳에서 잘 자라므로 등산로 훼손지 복구 또는 사방공사지 암석원에 식재하면 토양유실을 방지할 수 있다. 대량의 씨앗뿌림(Seed spray)을 할 수 있으며, 성장력이 빠르다. 정원이나 화단에 무리지어 식재하면 봄에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다. 소나무림과 같은 침엽수림 아래에 식재 가능하다. 약간 건조할 정도로 배수가 잘되는 곳에 식재하는 것이 좋다.

애기말발도리 *Deutzia gracilia* Siebold et Zuccarini




초형	반원형 / 낙엽관목
식재적지	광(양지,반음지) / 토양(적습지)



번식	종자 : 8~9월경 성숙한 종자를 채취하여 곧바로 파종 분주 : 가을~봄에 큰 포기를 나누어서 번식 삽목 : 녹지삽(여름), 속지삽(가을)
----	---

특징/활용  
 일본원산의 낙엽관목이며 주로 관상용으로 재배한다. 수고가 낮고, 가지가 많이 갈라지므로 지피식물의 효과가 있다. 잎은 긴타원형이고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다. 흰색의 꽃은 줄기 끝에서 총상화서로 달리며 관상가치가 높다. 햇빛이 충분한 정원이나 공원의 가장자리에 경계식재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식물이다. 정원석 주변에도 잘 어울린다. 가로화단이나 낮은 담장, 울타리 주변에 줄지어 심으면 좋다.

▶ 암석원에 잘 적응하는 식물들

금마타리		<i>Patrinia saniculaefolia</i> Hemsley
	초형	반원형 / 다년초
	식재적지	광(양지) / 토양(건조지, 적습지)
	번식	종자 : 10월경 성숙한 종자를 채취하여 곧바로 파종하거나 이듬해 봄에 파종 분주 : 봄, 가을에 뿌리줄기를 나누어서 번식
	특징/활용	산지의 능선부 바위틈에서 주로 자라며 손바닥 모양의 잎은 얇게 갈라진다. 줄기 끝에 모여 피는 노란색의 꽃과 가을철에 노란색으로 변하는 잎은 관상 가치가 있다. 식물체 전체에서 퍼지는 독특한 향기는 가을철 잎의 단풍이 들기 시작할 때부터 이듬해 봄 출엽기까지 지속된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향기원 또는 맹인가든(Blind garden)에 식재 가능하다. 일반적인 정원 또는 암석원, 척박한 경사지, 바위틈에 식재하면 좋다.
비늘고사리		<i>Dryopteris lacera</i> (Thunb.) Kuntze
	초형	반원형 / 반상록성
	식재적지	광(양지, 반음지) / 토양(적습지)
	번식	가을~봄에 뿌리줄기를 분주
	특징/활용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내한성이 강한 반상록성 양치류이다. 뿌리줄기는 굵고 짧으며 덩어리져 잎이 총생한다. 잎줄기의 아래쪽에는 적갈색의 인편이 많이 붙는다. 엽신의 길이는 30~60cm, 2회 우상으로 갈라진다. 포자낭군은 엽신의 윗부분에만 달리고 포자가 달린 부분이 축소되는 것이 특징이다. 양지, 반음지 모두 잘 생육하며 정원이나 낙엽수림, 상록수림 아래 군식하면 지피 효과가 높다. 돌담이나 정원석 주변에 식재해도 좋다.

\* 이 외에 새덤류, 해란초, 섬백리향, 왜성미역취, 기린초, 개쑥부쟁이, 바위채송화 등의 식물을 사용할 수 있다.

▶ 다양한 형태의 암석원(Rock garden)

오솔길

- 암석의 색깔과 식물의 색깔을 고려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 식물의 특성을 이용하여 디자인할 경우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다.



담·계단

자칫 밋밋할 수 있는 담이나 계단에 식물로 생동감을 줄 수 있다.



▶ 다양한 형태의 암석원(Rock garden)

정원

초장이 낮은 식물은 완만한 경사의 암석지에 제격이다.  
초화류와 관목이 암석, 자갈과 어우러져 매력적인 공간을 연출한다.



시냇가

돌과 물, 식물이 만나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으며 청각적으로도 상쾌함을 느낄 수 있다.



\* 참고 : 두산백과